“청년불자 배가 운동, 봉선사가 마중물 되겠다”

특별인터뷰 호산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후보)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제17대 주지후보로 前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당선됐다. 앞서 단독 입후보한 호산 스님은 9월 4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투표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제 총무원장의 임명장 수여 절차만 남은 가운데 10월 9일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호산 스님을 산중총회가 끝난 뒤 봉선사 염불원에서 만났다.

3개월간 교구 여론 경청

산중총회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봉선사의 가장 큰 어른인 회주 밀운 스님에게 인사를 올린 뒤 만난 호산 스님은 장삼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한숨 돌린 스님에게 당선 소감부터 물었다.

“100%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야 하는데 혹여나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지후보에 도전하면 공약이나 종책을 내걸지만 사부대중의 바람을 먼저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대중공의를 모아 봉선사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쟁상대 없이 단독으로 주지후보에 나섰던 호산 스님의 고민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느껴졌다. 당선이 우선인 일반적인 선거처럼 공약부터 남발한 뒤 수습하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총무원 총무부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맡은 경험에서 비롯된 자세가 아닐까. 스님은 주지 개인이 아닌 봉선사 전체의 원력을 강조했다.

“봉선사는 교종본찰이지만 교리뿐만 아니라 선(禪), 의례, 불교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본사입니다. 월초 대화상부터 운허 · 운경, 조실 월운 큰스님 등 어른스님들의 사명감이 이어졌으니까요. 이런 큰스님들의 원력은 저 혼자가 아닌 사부대중이 함께 계승해야 합니다. 대중공의를 모으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봉선사는 이번 주지후보 선거를 앞두고 문중별 의견을 수렴해 일찍이 호산 스님을 적임자로 낙점했다. 출마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지만 호산 스님을 제외한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과거 선거에서 복수 후보로 시작해 단일화를 이룬 것과 달리 애초부터 모두가 한 사람만을 지지한 셈이다. 여기에는 얼마 전 원적에 든 월운 대강백께서 남긴 화합의 가르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실스님 장례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조문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만큼 조실스님께서 남긴 업적이 크고, 후학들에게 보이신 덕화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부대중이 망상 피우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합하라는 말씀을 구성원 모두가 되새겼을 겁니다. 입적하시면서도 교구 구성원의 뜻을 모아주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불자 포교, 과제 아닌 숙명

수도권 가운데 경기북부를 책임지는 유일한 교구본사인 봉선사. 승려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년포교, 승보공양, 문화축제 등으로 대중과 호흡해온 모범 사찰이다. 국내 최대 스노보드대회인 ‘달마오픈’을 창설하고 비보이 경연대회를 주최하며, 스포츠 · 문화포교에 앞장서온 호산 스님과의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사진 왼쪽)과 호산 스님은 서로 손을 꼭 쥐고 교구발전을 염원했다.

단독 입후보 9월 4일 당선 확정
“기쁜 마음에 큰 부담감도 느껴”

교리 · 선 · 의례 두루 갖춘 본사
개인보다 교구 전체 원력 중요

비불자 포교 위한 콘텐츠 개발
대학생 포교 거점 도량 발원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건 정치인이 할 수 없습니다. 케이팝(K-pop) 가수, 운동선수, 예술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결국엔 포교도 얼마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대중을 만족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봉선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고요. 머릿속에 그려놓은 문화포교 방편들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작 열네 살의 나이에 출가해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봉선사로 온 호산 스님. 당시 주지는 월운 스님이었다. 1980년대 ‘포교’라는 말 자체가 다소 생소했던 시기, 청소년이었던 호산 스님은 월운 스님 손을 잡고 군법당과 포교당 등을 쫓아다녔다. 어린이, 학생, 군인, 성인까지 눈높이에 맞춰 설법하며 소통하는 월운 스님의 모습은 호산 스님을 포교에 매진하게 한 지남이기도 하다. 봉은사에서 쌀을 얻어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어려운 봉선사였지만 큰스님들은 한순간도 포교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얼마 전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등 사찰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잖아요. 거기에 케이팝 댄스 시간도 있었죠. 그 덕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보다 빨리 한국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삭발을 체험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바가 큽니다.”

호산 스님은 출가 이후 줄곧 선방을 다니며 수좌로서의 길을 걸었다. 용맹정진으로 도인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출가생활을 하면서 종단 행정을 할 것이라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슨 인연인지 서울 수국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사판으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이판과 사판을 제대로 경험한 것. 둘의 차이를 묻는 우문(愚問)에 스님의 현답(賢答)이 돌아왔다.

“예전에야 이판과 사판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은 시대가 오지 않았나요? 참선이든 포교든 행정이든 수처작주 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찾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선만 하고 있으면 불교의 존속이 어려워지겠죠. 교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교구를 운영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사실 뭐든 치열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노력해도 불교중흥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상월결사는 삶의 전환점

호산 스님은 2019년 11월 아파트 공사현장 한복판인 위례 신도시에서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동참했다. 상월결사 회주인 자승 스님의 풍찬노숙 제안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출가 이후 40년간 무언가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고민에 빠졌던 호산 스님에게 상월결사는 수행생활의 전환점으로 다가왔다.

“천막결사에 들어갈 때가 출가 4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 저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참이었죠. 승려 생활 40년을 제대로 보낸 건가 싶기도 하고, 스스로 나태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 회주스님 말씀을 듣고 도전정신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마치 밋밋한 음식만 먹다가 자극적인 게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죽을 각오로 극한의 수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한겨울 천막에서 석 달 안거를 보낸 스님은 이후로도 늘 상월결사에 함께했다. 국난극복 자비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올 초 49일간 펼쳐진 인도순례까지. 결사 중에 겪은 많은 어려움과 감동은 호산 스님의 포교 원력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대학생 포교에 사활을 건 상월결사의 뜻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본사가 지역 대학의 전법을 책임지기로 한 만큼 봉선사부터 앞장서 대학생, 청년포교를 이끌어야죠. 청년불자 배가 운동을 대표하는 도량이 될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산 스님은 곁에 있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두 손을 꼭 쥐었다. “형님께 누가 되지 않겠다”는 호산 스님의 말에 인묵 스님은 그저 환한 미소로 답했다. 조선시대 ‘선왕을 받든다’는 봉선(奉先)의 뜻은 화합을 강조한 어른스님들의 유지를 잇는 것으로 어느새 변했을지 모른다.



호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수계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문경 봉암사와 합천 해인사, 김천 수도암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양평 상원사와 용문사, 서울 수국사 주지, 제16 · 17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2010)과 문화체육관광부 템플스테이 공로 표창장(2014)을 받았다.

법보시·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12



현대불교신문 법보시 · 구독 및 후원 신청서

법보시·구독 신청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납부방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25일
- 입금 계좌번호 :
  - □국민은행 245-25-0001-461
  - □농협은행 053-01-269050
  -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신청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후원금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 접수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 자동이체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